

한라포커스 제주도 버스 중앙차로 확대 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쪽' ... 사업 불투명

행안부 조건부 승인 "국토부 국비 지원 허락 필요"
 국토부 "제주, 대도시권 아니어서 우선 지원 불가"
 도 대응책 국토부 설득뿐... 지방비 투입 추후 고려

버스 전용차로 여러 종류 중 하나인 중앙차로를 확대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이 지난 20일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웃을 수 없는 처지다. 심사만 통과했을 뿐 여전히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공 떠넘긴 행안부=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에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2단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사업은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 구간에 있는 지금의 가로변차로를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전환하고, 아라초등학교~달맞이교차로 1.6km 구간에 새롭게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336억원으로, 제주도는 이중 절반 이상인 177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길 희망하고 있다.

가로변차로도 버스 전용차로 종류 가운데 하나다. 차로 맨 바깥쪽에 조성되며 청색 실선과 청색 점선으로 그려져, 흰색의 일반 차로와 구분된다. 실선 구간에선 일반 차량 진입이 금지되고 점선 구간에선 우회전한다.는 조건 아래 일반 차량 진입이 허용된다. 또 중앙차로는 24시간 운영되지만 가로변차로는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제주도는 이런 이유로 가로변차로가 중앙차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가로변차로를 불법 통행하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급하게 일반 차로로 끼어드는 양태 운전도 종종 있어 사고 위험도 있다.

가로변차로를 중앙차로로 바꾸는

2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 처음 발표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교통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도 제주도가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국토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승인하면서 '국토부가 국비 지원을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 재정부담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안부는 절차만 이행했을 뿐 여전히 키는 국토부가 쥐고 있다.

▶국토부는 왜 국비 지원 반대하나=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2단계 사업'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할 근거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고 있다. 이 법 제12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의 버스 전용차로 조성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제주도는 법에 규정된 대도시권도 아니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국비를 우선 지원 받으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 대도시권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러 난제에 얽혀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구간을 따라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을 거절하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워낙 투입되는 재정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고려해 볼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국토부 설득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버스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를 처음 도입했다. 이중 버스 중앙차로는 제주공항로 0.8km 구간과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2.7km 구간에서 운영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직 기강 바로잡아 도정 조기 안정을" 좌남수 의장, 추경 추석 이전 신속 집행도 주문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6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에게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 도정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이날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현재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강력히 바로잡아 권한 대행 체제를 조기 안정화해달라"면서 "공교롭게도 권한 대행 전환 시점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당장 발동에 불이 떨어졌지만 도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또 "현안 대응에도 도정의 역량을 모아달라"며 "제주특별법 개정, 제2공항 갈등 해소, 4·3 배보상 등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 반발이 심화하고 있는 곳자살 보전관리 방안 논란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불연성 폐기물 반입 중단 사태에 대해 "행정의 힘으로만 밀어 붙여도 안될 일"이라면서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백신 방역, 고용·민생안정 등에 편성됐지만 추경 기조에 맞는지 시급한 민생예산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각 상임위원별로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안정에 쓰여질 예산만큼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자문 위원회 신설

도, 위촉직 등 12명으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정책을 심의·자문할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 ▷정정바다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저감·처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

례'에 따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7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수산국과 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 등 해양, 환경,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장 등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 및 수산관련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546**
 26일 17시 기준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www.je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뺀 몸
- 바다의 인심으로 불리우는 몸에 좋은 해삼
- 3無 첨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방법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랍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살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무게를 달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64-725-1100**

제조 판매인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길 7-10